

>> 1면 '강성노조의 그늘'서 계속

### 강성노조·낮은 생산성 등 제조업 전 분야에 나타나 해결 없인 韓경제 불투명

2010년에는 23만7000여대를 생산해 20만5000여대를 유럽에 수출했다.

그러나 2013년 GM이 유럽시장을 현지 자회사 오펔, 북스홀에 맡기고 웨보레 브랜드를 철수했다. 크루즈를 포함한 한국 공장의 유럽 수출 물량이 줄어든 결정적 이유다. 이같은 부진을 막기 위한 신차 연구 개발등은 이뤄지지 않았다.

결국 지난해 군산공장에서 생산한 크루즈는 모두 2만3000여대에 그쳤고 그나마 내리막을 걷던 수출 물량도 더 줄어 1만대 아래인 9466대로 떨어졌다.

완성차 업계 관계자는 "강성노조와 과도한 인건비, 낮은 생산성은 한국GM뿐 아니라 국내 자동차 산업을 비롯한 제조업 전 분야에서 나타나고 있다"며 "이같은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한국 경제의 미래는 불투명하다"고 말했다. /양성운 기자 ysw@

# 핵담판 패싱 우려하는 '중·러·일'에 파견단

>> 1면 '평양서 운전대 잡은 문...서 계속

북한의 핵 실험과 미사일 도발에 멀게만 느껴졌던 남과 북이 가까워지는데는 많은 시간이 필요치 않았다.

지난 5일부터 1박2일간 평양을 다녀온 정의용 실장을 수석특사로 한대북특사단은 '4월 말 남북정상회담'이라는 큰 선물을 들고 왔다.

무엇보다 남북은 긴밀한 협의를 위해 정상간 '핫 라인' (Hot Line)을 설치하기로 뜻을 모았다. 첫 통화는 4월 말 예정된 남북정상회담에 앞서 실시하기로 했다.

이런 가운데 문 대통령은 임중석 비서실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남북정상회담 준비위원회'를 꾸려 만반의 준비를 할 것을 지시했다. 준비위는 과거 김대중·노무현 대통령 시절 꾸렸던 경험을 토대로 통일부 등 관련 부처가 폭넓게 참여할 것으로 알려졌다.

5월에 만날 가능성이 높은 김정은 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간 북미정상회담의 장



대북 특사단 대표로 평양을 간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지난 5일 평양 조선노동당 본사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에게 문재인 대통령의 친서를 전달하고 악수를 나누고 있다. 김 위원장이 왼손에 문 대통령의 친서를 들고 있다. 김 위원장 뒤로 동생인 김여정 조선노동당 제1부부장이 보인다. /청와대

소는 남측 제주도과 분단의 상징인 판문점, 그리고 중립국인 스위스 등이 거론되고 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판문점이 유력한 대안이 되지 않겠느냐"고 전했다.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미국과 북한간 소통은 기존에 알려진 '뉴욕채널' 외에도 여러 채

널이 있는 것으로 전해지는 만큼 장소와 주요 의제 등 실무 논의는 이들 채널을 활용하되 사안에 따라 우리쪽과도 긴밀한 협의가 이어질 전망이다.

2박3일 일정으로 워싱턴을 방문한 정 실장과 서훈 국정원장 일행이 북미간 정상회담 수락 등 트럼프 대통령과의 면담

내용에 대해 지난 9일(한국시간) 백악관에서 직접 공식 발표한 것을 놓고도 북한에 대한 미국측의 바뀐 태도를 엿볼 수 있는 대목이라는 평가다.

이에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정 실장 일행과 제임스 매티스 국방장관 등 백악관 참모진 20여 명이 백악관 내에서 대화하는 시간을 15분 가량 앞당겨 우리측 일행을 만나는 파격을 선보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과의 대화에 대해 10일(현지시간) "엄청난 성공을 거둘 것이다. 북한이 아주 잘 해나가리라 본다"고 말했다고 AFP통신이 보도했다.

한편 이날 오후 늦게 귀국한 정 실장, 서훈 원장은 문 대통령에게 방미 결과 등을 설명한 후 정 실장은 12일부터 1박2일 일정으로 중국을, 서원장 역시 같은 기간 일본을 각각 방문한다. 정 실장은 중국 일정을 마친 후 곧바로 러시아로 향한다. 다만 이들이 해당국 정상들과 만날지 여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김승호 기자 bada@metroseoul.co.kr

KB 금융그룹

## 모두의 희망 잘 아니까 KB손해보험이 안아드릴게요!

새 출발 새 가족 새 차 새 집...  
얼마나 설레는지  
얼마나 행복한지  
얼마나 기대되는지 아니까  
KB손해보험이  
든든하게 안아드릴게요  
희망을 안다  
희망으로 안다



## KB 윤종규-신한 조용병 생보사 인수 맞불경쟁?

ING생명 연내 매각 가능성에  
신한, 인수 올인·KB, 인수 타진



(왼쪽)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 (오른쪽)윤종규 KB금융지주 회장

KB금융지주에 이어 신한금융지주가 국내 보험사 인수합병(M&A) 시장에 가세했다. '알짜배기' ING생명이 연내 시장 매물로 나올 가능성이 커지면서 양사가 잇단 예비 실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새 회계기준 도입으로 보험사 자본확충 부담이 커진 가운데 경영 악화로 인해 KDB생명, 현대라이프, MG손보 등도 시장 매물로 거론된다는 점에서 향후 국내 보험업계의 '지각변동'이 예상된다.

11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신한지주는 최근 ING생명 인수를 위한 예비 실사에 착수했다. ING생명의 경영지표 등을 구체적으로 살핀다는 방침이다.

현재 신한지주는 지난해 말 기준 자산 30조원 규모의 신한생명을 보유한 상황으로 규모가 엇비슷한 ING생명을 인수할 경우 신한지주 생명보험 부문은 단숨에 업계 상위권으로 도약하게 된다. 강화된 생보 사업 외 은행 수입 등 시너지 창출로 그룹 전체의 이익 상승을 꾀한다는 계획이다.

신한지주는 지난 9일 공시를 통해 "그룹의 사업다각화 차원에서 M&A 추진을 검토하는 것은 맞다"면서도 "ING생명 지분 인수와 관련해 확정된 사항은 현재로서는 없다"고 말을 아꼈다.

### ◆ING생명 인수 시 자산규모 60조원

ING생명은 지난해 연말 기준 자산규모 31조4000억원, 당기순이익 3402억원을 기록했다. 보험사 자본적정성을 보여주는 보험금 지급여력(RBC)비율은 455%로 업계 최상위 수준이다.

현재 최대주주는 사모펀드(PEF)운용사인 MBK파트너스로 특수목적법인 라이프투자유한회사를 통해 지분 59.1%를 가지고 있다. 지난 2013년 1조8400억원에 ING생명의 주식 100%를 인수한 MBK파트너스는 이후 지금까지 지분 40.85%를 매각해 1조1000억원 및 배당금 5000억

원 이상을 챙긴 것으로 확인된다. 지난 2016년 한 차례 매각을 시도한 바 있으나 중국 측 매매인들이 사드(THAAD) 갈등을 이유로 포기하며 실패했다.

투자업계 관계자는 "ING생명은 새로운 회계제도(IFRS17) 도입에도 건전성 지표가 훼손될 가능성이 낮다"며 "현재 생보사를 보유한 금융투자사들로서는 ING생명 인수로 시너지를 기대할만 하다"고 평가했다.

다만 시장 예상을 훌쩍 뛰어넘는 높은 인수가가 걸림돌로 꼽힌다. 실제 MBK파트너스는 현재 고(高)배당 정책을 통해 매각가를 높이는 전략을 취하고 있다. MBK가 목표로 하는 매각가는 3조원대로 알려졌다.

### ◆잇단 보험사 매물로 업계 지각변동 예상

그러나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의 비은행 부문 강화를 통한 수익 다변화 전략 의지가 상당히 강한 것으로 평가된다. 조 회장은 지난해 창립 기념식에서 "시장을 예의주시하면서 기회가 왔을 때 M&A를 비롯한 다양한 방안을 적극 추진할 것"이라고 '과감하고 빠른 사업 포트폴리오 업그레이드'를 강조했다.

이는 앞서 보험사 인수 의사를 타진한 윤종규 KB금융지주 회장 역시 마찬가지. 윤 회장은 올해 경영 계획에서 "국내 M&A를 통한 그룹 포트폴리오 완성을 위해 대형 모멘텀 M&A를 지속 발굴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실제 올해 KB생명 보험 수장으로 지난 2015년 LIG손보(현 KB손보) 인수 이후 통합 등을 총괄했던 허정수 사장을 낙점했다.

/이봉준 기자 bj35sea@